

<좁은 길>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청렴(淸廉)’이 화두로 떠올랐다. 원장의 기념사에서는 물론 지시사항에서도 ‘청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실에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청렴특강도 자주하고, 청렴유적지답사, 청렴마일리지제도, 청렴게시판 등도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요즘같이 이렇게 ‘청렴’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때면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벌써 7년이 지났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성인들에게 워드, 엑셀 등 사무자동화 분야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저녁반 수강생 중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다는 분이 있었다.

“요즘은 학교의 방과 후 강사가 대세잖아요. 여기 계시지 말고 그쪽으로 진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선생님 실력이면은…….”

그녀의 미소가 고왔다. 처음에는 그저 흘러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학교에서 한번 근무해보는 것도 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방과 후 강사 채용공고가 붙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오후에 40분씩, 3개의 반을 운영하였다. 티 없이 맑은 눈을 가진 1-2학년의 천진난만한 수업이 끝나면, 장난 끼 가득한 3-4학년이 컴퓨터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한참 혼을 빼놓았고, 이어 진지한 5-6학년이 ITQ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간을 재며 숨죽여 연습하였다.

수업 듣는 학생 수에 따라 강사의 급여가 계산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듣는 학생은 월 5만원, 3일 듣는 학생은 월 3만원을 학교에 내었고, 여기서 전기세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라는 명분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강사에게 지급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스스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배우러 온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온 터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대다수는 부모님이 시켜서 배우러 온 경우가 많아 뭔가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 컴퓨터를 다루면서 즐거워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각 학년에 맞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편, 부모님과 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은 급격히 늘어났다. 따라서 학생 수에 비례하여 내가 받는 보수도 점점 많아졌다.

1년 후, 재계약의 날이 다가왔다. 어느 날 교장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교장실로 갔더니, 연세가 많아 보이는 교장선생님은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매월 받아 가신 월급 내역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 가셨더라고요. 시간당 받은 금액으로 계산해보니 너무 많습니다. 10%를 떼고 지급했는데에도 워낙 많아서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는 20%를 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수월찮이 받아 가셨으니까, 현재 컴퓨터 5대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순간 나는 많이 당황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내 표정을 살피더니 내일까지 결정해서 방과 후 담당 선생님에게 의사를 전달해 달라며, 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강사를 채용해야 되니 시간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의 횡포이자, 비정규직의 서러움이었다.

최초 계약 시, 매달 학생들에게 받은 수강료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에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서 고장이 난 기기의 수리를 미루고 미루다가 재계약을 앞둔 나에게 컴퓨터 5대의 본체를 새것으로 무상 교체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20%를 공제한다니...생각을 거듭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나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방과 후 컴퓨터교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도 많아져서 해당 학교의 발전에도 일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대로 재계약이 이어지리라 여겼는데, 교장실 문을 닫고 나와 학교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

동안 내 생각들은 더 복잡하게 얽혀서 머리가 아팠다.

그날 저녁, 선배들을 만나 내가 당면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야, 이놈아! 니가 그래가지고 언제 사람이 되겠노?”

되레 나를 나무랐다.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준다면 술을 한잔 사라고 했다. 술 자리에서는 사회생활의 기초부터 설명한다며 훈계하듯 앞에 앉은 선배가 말하기 시작했다.

“니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앉은 다른 선배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이번에 20% 그대로 계약을 한다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컴퓨터도 새 거 사주고, 1년 동안 감사했다고 상품권을 넣어서 갈비라도 한 짝 사서 살짝 갖다드려라. 그래도 크게 손해 볼 건 없잖아. 그러면 내년엔 10%로 낮춰줄 거고, 컴퓨터 보수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 거야.”

이어 앞에 선배가 말했다.

“너는 다 좋은데, 그런 걸 어찌 못하냐? 사람이 인사를 잘해야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엔 꽤심죄에 걸린 거야.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은근슬쩍 명절 같은 날은 명절 핑계대고 선물을 조금씩 챙겨주는 거야. 앞으로는 그리해라 줌.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야.”

듣고 보니 구구절절 다 맞는 말 같았다. 내가 그동안 좀 무심했었나 싶기도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선배들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다. 자칫 혼자 잘난 척 하는 인간으로 보이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힐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서로 친분이 있던 방과 후 선생님에게 재계약 조건을 물어봤더니 아무 문제없이 10%의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학생 수가 늘지 않아 호응을 얻지 못해서 별 다른 성과가 없었던 강사는 순탄하게 계약이 잘 이루어졌고, 많은 학생들도 모집했고 인기를 얻어 큰 성과를 올려서 학교에도 도움을 준 나는 되레 교장선생님의 직권 남용과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만 둘까, 생각하니 또 그동안 잘 지냈던 아이들의 영롱한 눈망울이 떠올랐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문자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이 친해진 아이들이었다. 토요일 오전, 학교 정문으로 다들 나오라고 해서 내 차로 교사장으로 태워 나르고, 마음 졸이며 전전긍긍하던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다독거리웠던 순간들, 시험 다 칠 때까지 부모가 된 심정으로 교사장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순간들, 시험을 마치고 나온 희비가 교차된 아이들에게 이제 다 잊고 피자집으로 가자고 해서 같이 먹으면서 떠들고 웃던 기억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양심의 문제였다. 선배들의 말처럼 관행이라는 사회적인 비양심 앞에 나는 굴종할 것인가? 깊은 고심 끝에, 나는 조금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 초년생인 나의 앞길에 수없이 나타날 길로 여겨졌다.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리라 마음먹었다. 좁은 길은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지만, 진리로 향하는 길이다.

방과 후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번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던지 내게 거듭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께 당신의 제안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 말씀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내가 영 썩쓸했고, 잠시나마 선배에게 조언을 따라 ‘사례금도 드리면서 순순히 따라볼까.’ 하고 망설였던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만두고도 몇 달 동안 “선생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며 고마움을 잊지 못해 연락이 왔던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날 내 양심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작은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시간은 흐른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강조되는 자리에 있다. 업무를 하며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는 시험대에 놓이지만 그때 좁은 길의 선택이 내 삶의 큰 나침반이 되어, 이제는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까지 생기게 되었다.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관행이라는 사회적인 비양심적 고리를 끊어 내는 시발점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오늘도 책상 앞에 적혀있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을 보며 마음을 굳게 다 잡는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